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민수	직급	연구위원(본부장)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엄지	직급	전문연구원(실장)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정다현	직급	위촉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관련사업 (예산항목)	<b>○ 관련사업</b> - 「2023년 북극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국내기반 조성 연구」 (수탁) (사업기간 : 2023.03.10.~12.22.) <b>○ 출장목적</b> : 2023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 개최 <input type="checkbox"/> NPARC 세미나를 연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중·일 관련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사업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과학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북극이사회 내 옵서버 역할 확대를 위한 3국간 협력 기반 마련 - 2023년도 NPARC 세미나 개최국인 일본과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한·중·일 3국 북극연구 기관간 협력 확대를 목표로 연구 사업 및 협력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3국의 북극 거버넌스 진출 기회 모색 *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는 KMI의 주도 하에 한중일 북극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네트워크로 3국간의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2014년 설립, KMI가 한국측 사무국을 맡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이후 첫 한·중·일 북극협력대표 비공식협의회 개최 지원					
출장기간	2023.08.27.(일) ~ 2023.08.30.(수)			출장지	일본(삿포로, 홋카이도)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08.27(일)	(김민수, 김엄지) 인천(09:20) → 삿포로(11:50)		오전: 항공 이동 오후: 외교부 및 참석 기관 협의회		OZ174(ASI ANA AIRLINES)
		(정다현) 부산(09:05) → 삿포로(11:40)				BX182(AIR BUSAN)
	08.28(월)	Hokkaido University FMI Hall		오전: 한·중·일 북극협력대표 비공식 협의회 개최 지원 오전·오후: NPARC 세미나 북극 1-4세션 참석 오후: 국제 협력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킹		홋카이도 현지 체류
	08.29(화)	(정다현) National Ainu Museum UPOPOI		오전: 홋카이도 대학교 주관 현지답사(공식일정) 오후: 한·일 NPARC 업무 관계자 회의		홋카이도 현지 체류
		(김민수, 김엄지) National Ainu Museum UPOPOI 삿포로(17:00) → 부산(19:45)		오전: 홋카이도 대학교 주관 현지답사(공식일정) 오후: 항공 이동		LJ238(JIN AIR)
08.30(수)	(정다현) 삿포로(12:40) → 부산(15:35)		항공 이동		BX181(AIR BUSAN)	

출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목적 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이후 첫 한·중·일 3국 북극협력대표 비공식협의회 개최 및 3국 관련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북극이사회 내 옵서버 역할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출장 목적을 달성함</li> </ul> </li> <li>○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재개 관련 입장 파악</li> <li>- 중·일측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변화 전망</li> <li>- 비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가능 분야 모색</li> <li>- 한·중·일 북극 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협력 사업 전략 등 공유</li> <li>- NPARC 행사 운영 및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 논의</li> <li>- NPARC+ 모델 도입 논의(한국, 중국, 일본, + 싱가포르, 인도)</li> </ul> </li> </ul>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 성과 공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NPARC 프로시딩 발간</li> <li>- ARCTIC PORTAL-Arctic Yearbook 기고</li> <li>- 국내 북극 관련 연구기관에 발표 자료 공유</li> </ul> </li> <li>※ 발표 자료 공개에 동의한 자료에 한함</li> <li>○ 정책화 등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태평양 북극 연구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북극 관련 행사에 인사 초청 및 기능 확대</li> <li>- 외교부 및 북극 관련 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추후 정책화 등의 활용 방안 검토</li> </ul> </li> </ul>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해당 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업무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
업무①	<b>08.27.(일) 한국측 참석자 NPARC 관련 회의</b>
수행계획	<p><input type="checkbox"/> 한국측 세미나 참석자, NPARC 관련 회의</p> <p>- 주요 참석자: (외교부)박종석 극지협력대표, 조민정 외무사무관, (KMI)김민수 본부장, 김엄지 실장, (극지연) 나형술 책임연구원, 진경 책임연구원, (대학) 최수범 연구위원, 김봉철 교수 등</p> <p>- 협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NPARC 현황 공유 및 2024 NPARC 참여 확대 방향 논의</li> <li>· 참석자 간 북극 협력 방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논의</li> <li>· 국내 북극 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협력 사업 등 공유</li> </ul>
수행결과	<p><input type="checkbox"/> 금년 새로 부임한 외교부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및 조민정 외무사무관, 국내 북극 관련 연구자들과 네트워킹을 통한 라포형성, 2023년 이전 개최된 NPARC 행사 내용 및 금번 행사의 주요 참석자, 발표주제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함. 또한 2024년 NPARC의 더욱 활성화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해 논의함.</p> <p><input type="checkbox"/> 참석자들 간 북극 협력 사업, 협력 방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 북극 이슈에 대해 논의함. 특히, △금년 10월 아이슬란드에서 개최되는 북클서클 총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정세, △기후변화의 영향력,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 아울러 각 기관별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중인 북극 관련 정책과 프로젝트를 공유하며, 향후 회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전달하기로 결정함.</p>
업무②	<b>08.28.(월) 코로나19 이후 첫 한·중·일 3국 북극협력대표 비공식협의회 개최</b>
수행계획	<p><input type="checkbox"/> 한·중·일 3국 북극협력대표 비공식협의회</p> <p>- 주요 참석자: 박종석 극지협력대표(한), Keizo Takewaka(일), Gao Feng(중), 조민정 사무관 등</p> <p>- 협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재개 관련 입장</li> <li>·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변화 전망</li> <li>· 일본측 북극항로 개발 관련</li> </ul>
수행결과	<p><input type="checkbox"/> 박종석 극지협력대표는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가 2019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상황으로 중단되었음을 상기하며, 재개 가능성 관련 입장을 문의.</p> <p>*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2015.11월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 간 합의에 의해 2016.4월 서울에서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후 2019년 4차 회의까지 한국-일본-중국 순서로 순환 개최</p> <p><input type="checkbox"/> Keizo Takewaka(일)</p> <p>-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재개 관련 입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izo Takewaka 대사는 현재로서는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관련 추진 계획이 없다고 답하고, 일본은 북극 관련 양자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극지 업무 주무부처인 문무과학성의 추진 의지도 부족하다고 설명함.</li> <li>· Takewaka 대사는 다만, 북극 관련 데이터 정보 공유, 쇄빙선 운용 협력 등과 같이 특정 주</li> </ul>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p>제를 정하여 회의 개최 요청 시 문무과학성에서 검토는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kewaka 대사는 또한, 한·중·일 3국간 북극 협력은 △북극권 국가들의 견제, △미국-중국 경쟁구도 하에서 중국이 포함되는 협의체 추진 난한 등 감안 시, 재개 논의가 매우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으며, 대안으로 싱가포르, 인도를 포함하여 아시아 옵서버 5개국 간 회의 추진을 구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함.</li>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kewaka 대사는 現 지정학적 상황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북극이사회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북극지역이 갖는 경제 및 안보 중요성 때문에 러시아는 북극지역에서 어떠한 분란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함.</li> <li>· Takewaka 대사는 북극권 야말반도 LNG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북극항로 개발은 러시아 핵심 산업(Vital Industry)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li> </ul> </li> <li>- 북극항로 개발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kewaka 대사는 사사카와평화재단(Sasakawa Peace Foundation) 등이 민간차원에서 북극항로 개발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li> <li>· Takewaka 대사는 사사카와평화재단이 일본의 북극정책이 수립된 2015년보다 앞서 북극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 개최된 북극서클 일본포럼도 북극서클사무국과 사사카와평화재단이 공동주최로 개최했다고 부연함.</li> </ul> </li> </ul> <p>□ Gao Feng(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일 고위급 북극협력대화 재개 관련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o Feng 북극협력대사는 現 지정학적 상황이 중국에게는 북극 관련 협력 참여에 장애가 되지 않으나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소 복잡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임을 전제로) 동 대화 재개 논의가 답보상태인 이유는 한-일과 중국이 직접 대화하는 상황을 미국이 원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함.</li> <li>· Gao 대사는 한국이 3국간 북극협력대화 의지도 충분하고, 당초 동 회의체를 처음 주도하여 시작한 것도(Initiate) 한국임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이나 일본 정부의 대화 재개 의지보다는 미국의 입장 변화가 한·중·일 3국 고위급의 북극 관련 대화 재개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함.</li> <li>· 한편, Gao 대사는 일본측 주요 북극정책연구기관인 사사카와평화재단의 경우, 3국간 협력 논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이미 관련 예산확보를 비롯한 실질적인 준비도 되어 있으며, △북극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북극항로 개발, △북극 관계자 능력 배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사카와 재단과 같은 민간의 의지가 정부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한다고 부연함.</li> </ul> </li> <li>-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북극이사회 거버넌스 변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o 대사는 러시아가 북극이사회에 합류하지 못하는 現 상황은 북극이사회가 북극을 다루는 최고 협의체로서 실효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이라며, 다만 러-우 전쟁이 궁극적으로 종료되는 상황을 보아가며 북극이사회가 예전과 같이 러시아의 참여하에 정상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러시아가 북극이사회 탈퇴와 같은 강경한 조치를 취할 기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함.</li> <li>· 한편, Gao 대사는 만의 하나 러시아가 북극이사회에서 탈퇴하는 최악의 상황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러시아가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li> </ul> </li> </ul>
--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유지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첨언함.
업무③	<b>08.28.(월)~08.29.(화) 2023 NPARC 세미나 개최 및 참석</b>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 NPARC 세미나 개최 및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소: 홋카이도 대학교, FMI Hall</li> </ul> </li> <li>□ 주요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종석 극지협력대표, Keizo Takewaka 일본 북극협력대사(일본 SAO), Gao Feng 중국 북극협력대사(중국 SAO), Fukamachi Yasushi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장,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 Yang Jian 상해국제문제연구소(SIIS) 부소장, Natsuhiko Otsuka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 교수, Sakaguchi Hide 사사카와평화재단 이사장 등</li> </ul> </li> <li>□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li> <li>- 1세션: 북극협력</li> <li>- 2세션: 북극과학연구</li> <li>- 3세션: 지속가능한 북극</li> <li>- 4세션: 북극과 미래세대</li> </ul> </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pening Ses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ukamachi Yasushi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팬데믹 이후 오랜만의 대면 회의 재개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특히, 한·중·일 3국 북극협력대사가 모두 대면 참석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li> <li>-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김민수 본부장 대독)은 환영사에서 북극 이슈가 더 이상 북극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전지구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가 3국간 북극협력 확대 및 아이디어 교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함.</li> <li>- Yang Jian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환영사를 통해 과거에는 주로 북대서양 지역 관점에서 북극 문제를 다뤘으나, 이제는 북태평양 지역 관점에서도 북극 문제를 논의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함.</li> </ul> </li> <li>□ 한·중·일 북극협력대사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o Feng 중국 북극협력대사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ao Feng 중국 북극협력대사는 한·중·일이 2013년 스웨덴에서 동시에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지 10 주년이 되었음을 언급하며, 지난 10년 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해야할 때라고 언급함.</li> <li>· Gao 대사는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NPARC)가 아시아 국가들의 북극 거버넌스 역할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유연한 논의의 장을 되기를 바란다고, 동북아시아는 북극항로가 시작되는 지점이고, 3국 모두 주요 가스 소비국이며 서로 이웃하며 상호 영향력이 큰 관계인 만큼 지혜와 협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함.</li> </ul> </li> <li>- 박종석 한국 극지협력대표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종석 극지협력대표는 북태평양북극연구기관협의회가 2014년 제주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한·중·일 3국 연구기관 간 소통 및 정보 공유의 장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해 왔음을 평가함.</li> <li>· 박대사는 2023년은 한·중·일 3국이 동시에 북극이사회 영구 옵서버 지위를 획득한 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사회 및 워킹그룹 활동에서의 기여 증진 및 옵서버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함.</li> <li>·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북극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가운데,</li> </ul> </li> </ul> </li> </ul>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p>CAOFA 당사국총회 개최에 이어 내년 6월 예정된 3차 총회도 개최함으로써 의미 있는 기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izo Takewaka 일본 북극협력대사 기조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eizo Takewaka 북극협력대사는 2023년 4월 승인된 일본 정부의 제4차 해양 정책 기본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극지 정책 연시 해양정책 기본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함.</li> <li>· Takewaka 대사는 북극이사회 정회원국 및 옵서버 국가의 북극 활동, 쇄빙선 운영 현황, 국민총생산지수 등 통계자료를 비교하며, 한·중·일 3국간 협력 시, 그 비중이 결코 북극권 국가 대비 적지 않다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li> </ul> </li> <li>□ 1세션: 북극협력(좌장: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앵커리지일본총영사관의 Aniya Masaru 영사는 '홋카이도와 알래스카의 협력'을 주제로, 홋카이도-알래스카 간 6개 도시의 자매결연 진행 상황 및 북극 원주민인 알래스카의 원주민과 일본의 아이누족 간 교류 활성화 사업의 결과를 발표함.</li> <li>- 통지대학교의 LU Zhibo 교수는 'PAME에 대한 중국의 기여와 관심: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며,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중 하나인 PAEM가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초기 대형 해양 폐기물 위주 연구에서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연구로 확대 및 전환되었음을 설명함.</li> <li>- 한국외국대학교 김봉철 교수는 '한·중·일 3국의 극지에 관한 법 비교'를 주제로 각각의 극지 관련 국내법 제정 현황을 소개함. 특히, 2021년 시행된 한국의 극지활동진흥법은 일본, 중국의 법령과 달리 남극과 북극을 모두 총괄하는 법령이라고 설명함.</li> <li>- Ocean Policy Research Institute(OPRI)의 Sakaguchi Hide 소장은 지난 3월 도쿄에서 개최된 북극서울 일본포럼의 한·중·일 대화는 'Asian Wisdom'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함. 또한, 3국간 연구협력은 상호 경쟁이 아닌 과학기술협력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함.</li> <li>-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UCAS)의 Qingchao XU 박사는 '북극 거버넌스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국제 과학 협력의 역할'을 주제로, 북극 거버넌스의 제도화, 북극 거버넌스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도전 과제, 국제 북극 과학협력의 장점, 과학과 정책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한·중·일은 기술 혁신 역량이 뛰어난 선진국으로 북극 거버넌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li> </ul> </li> <li>□ 2세션: 북극과학연구(좌장: Uto Shotaro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ARC)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극지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lar Research, NIPR), Yabuki Hironori 교수는 지속가능성 관련 북극의 도전 과제가 북극 데이터 과학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일본의 ADS(Arctic and Antarctic Data archive System)을 소개함.</li> <li>- 극지연구소(KOPRI)의 진경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북극 기후변화 연구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해 녹은 빙하가 한국에 한파를 일으키는 등 한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관련 데이터를 설명함.</li> <li>- 중국 랴오청 대학교의 북극연구센터 Feng Qu 교수는 '북극의 전통생태지식(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 TEK)'을 주제로, 전통생태지식의 중요성과 이를 과학적 지식과 통합하여 사회 및 생태계 복원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설명하였음. 또한 북극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착민과 과학자들 간의 협력과 지식 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함.</li> <li>- 일본 해양·지구과학기술연구소(Japan Agency for Marine-Earth Science and Technology, JAMSTEC)의 Kimura Hajime 기술 책임은 '일본의 첫 북극 쇄빙선'을 주제로, 2020년 건조를 시작하여 2025년 건조완료, 2026년 첫 항해 예정인 차기 쇄빙선, 'Mirai'에 대해 소개함. Mirai는 해양</li> </ul> </li> </ul>
--	--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산성화 관측(Ocean Acidification Observation), 빙하 관측(Sea Ice Observation)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3세션: 지속가능한 북극(좌장: Ohnishi Fujio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ARC) 교수)

-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의 Kodama Yuji 교수는 '미래 지구와 SDGs 과제에 관한 홋카이도 대학의 북극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과학을 위한 과학'이 아닌 '사회를 위한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함.

- Nankai 대학의 Bai Yiayu 교수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국의 참여'를 주제로 발표함. Bai 교수는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가 동등한 당사국으로서 참여하는 '중양북극해공해상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을 예로 들며, 이러한 시도가 비북극권 국가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임을 설명함.

- 인천대학교 최수범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북극항로 개발과 북극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3국간 협력'을 주제로 발표함. 최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러시아와 추진중이던 한국과 일본의 협력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 선사들의 북극항로 컨테이너 시장 독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 3국 간 북극항로 관련 협력 필요성을 강조함.

- 통지대학교 극지해양연구센터의 Xia Liping 교수는 '북극의 지속가능개발과 기후변화 해법 모색을 위한 중국-미국 관계'를 주제로, 금년 6월 중국 광저우에서 Gao Feng 중국측 북극협력대사와 미국측 알래스카주 부지사 및 북극 관련 미국-중국 학계 인사 참석하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함. 미국과 중국 양국 과학자 간 교류는 공동의 지향점이 있으며, 바이든 정권 이후 강조되어온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밝힘.

□ 4세션: 북극과 미래세대(좌장: Natsuhiko Otsuka,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 교수)

- 중국 극지 연구소(PRIC)의 TANG Yao 부교수는 '중국의 젊은 과학자들과 국제 극지의 해(IPY)'를 주제로, 중국의 극지 연구의 역사, 중국의 젊은 과학자들이 국제극지의 해(IPYs)에 기여한 내용, 미래 연구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스테이션의 설립 그리고 극지 연구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의 신의찬 책임연구원은 'EU의 북극 정책'을 주제로, EU의 대외 정책, 유럽의 이웃정책, EU의 지정학적 전략, EU의 북극 정책을 설명하고, 최근 EU가 지정학적 행위자로서의 역할(+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계)도 강조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EU는 경로 의존의 흐름 속에서 정상적 강대국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역량-기대 격차 고려)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힘을 강화할 것인지 고민해야하는 때라고 언급함.

-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의 심민섭 연구원은 '한국의 극지활동 진흥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국의 극지 활동 및 법률, 국제 법률, 남극과 북극의 국제 법 등을 설명하고, 극지 활동 분야에서 글로벌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자간 응답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진화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홋카이도대학교 북극연구센터의 Yoshida Yuka 학생은 '북극 초학제적 실천 커뮤니티 활동'을 주제로 커뮤니티 런칭을 위한 준비 과정을 설명하며, 참조 용어, 웹사이트 구축, 토크의 중요성 그리고 연구자, 사업가, 비영리 단체, 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음을 설명함. 'VOICES from the ARCTIC'를 통해 커뮤니티의 활동과 정보를 전파하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의 목표와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음을 설명함.

- 홋카이도대학교 슬라브-유라시아 연구센터의 MIKHAILOVA Diana 학생은 '러시아의 북극항로

## 주요 업무내용 (계획( ), 결과( √ ))

	의 전략적 내러티브'라는 주제로 러시아의 북극항로에 대한 전략 기준을 2022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고, 2022년 이전은 NSR 개발의 주요 단계와 이러한 개발의 기본 목표를 설명함. 2022년 이후는 러시아의 북극 지역 개발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견해를 바탕으로 설명함.
업무④	08.29.(화) KMI(한)-홋카이도 대학(일) 간 NPARC 업무 담당자 면담
수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홋카이도 대학 북극연구센터측 NPARC 업무 담당자 면담</li> <li>- 참 석 자 : 나츠히코 오츠카, 코다마 유지 홋카이도대학 북극연구센터 교수 및 홋카이도대 측 실무진, KMI 정다현 연구원</li> <li>- 면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PARC 행사 운영 및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 논의</li> <li>· NPARC 행사 협력 전략 및 향후 일정 계획 공유</li> <li>· 일본의 북극 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협력 사업 등 파악</li> <li>· 한국, 일본 측 북극 관련 업무 현황 공유 및 협력 방안 모색</li> </ul> </li> </ul>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MI) 금년도 NPARC 행사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준비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함. NPARC 행사를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애로사항 및 고도화 방안이 있으면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음 행사 준비 시에는 한-중-일 3국 간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정하자고 제안함. 가령, Dropbox 등을 통해 필요 폴더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함. 그리고 일본측의 북극 관련 중요 연구들에 대해 질문함.</li> <li>□ (HU, ARC) 금번 행사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정보 공유 플랫폼은 실무적 측면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언급함. 아울러 이번에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생겼던 문제 및 애로사항들을 정리하여 공유하겠다고 밝혔음. 그리고 일본측의 북극 관련 중요 연구들은 이번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들이 핵심 내용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외에는 인문학 관점의 이슈, 원주민 관련 이슈, 국제정치 관련 이슈 연구들이 있다고 밝힘. 2024년 행사는 한국에서 진행할 차례라고 상기시킴.</li> <li>□ (KMI) 상기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하고, 2024년 NPARC 행사는 8월 또는 12월 북극협력주간에 개최될 예정이며, 세미나 운영방식은 세션별 동시 진행 후 zoom 녹화본을 공유하여, 서로의 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질문과 대화를 주고 방식 형식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언급함. 아울러 2023 NPARC 프로시딩 발간 시 필요한 정보 및 자료 등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회의를 통해 전달하기로 함.</li> </ul>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





NPARC2023 meeting in Sapporo, August 28-29, 2023